해남군 잇단 복지행정 우수 기관 선정 이유 있었네

구강보건·찾아가는 건강관리 돋보여

초고령화 대비…한 발 빠른 투자 결실

해남군이 올해 복지 관련 행정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연이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해남군은 최근 전국 253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벌인 2008년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2년 연속 구강보건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뽑혔다. 또 지난 4월 보건의 날을 맞아 건강증진 사업 우수기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수상실적은 전국 자치단체 중 보건 복지 분야 최고의 성적으로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노인층이 많은 농촌지역 자치단체에서는 매우 드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과감한 투자로 삶의 질 향상= 해남군은 올해 64억 원의 예산을 투입,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춘 보건지소 9개소와 보건진료소 14개소를 신축했다.

군은 신축된 보건기관이 들어선 마을을 '건강생활 실천마을'로 지정하고 운동과 금연, 식이요법을 비롯한 개인별 건강 개선을 위한 생애주기별 건강교육 등 각종 보건교육을 실시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초고령화 시대에 적극 대비= 해남군은 전체 군민 8만 여명 중 30%에 달하는 2만 4천 여명이 60세 이상의 노인이다. 군은 이에 따라 올해 군정 목표 중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기초생활수급노인 160명에게 2억 1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무료 의치(틀니) 시술을 했다. 또 기존 65세 이상 무료 독감 예방접종 대상도 60세 이상으로 문턱을 낮추는 등 복지 혜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주민 곁으로 찾아가는 보건 서비스= 군은 올 한해 독거노인과 거동불편자, 결혼이민자,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6천 세대를 직접 방문해 7천여 명에게 방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재가암 환자 325명의 특별 관리를 통해 간병용품과 영양식 등을 제공하는 한편 특수의료 장비 소독 관리, 말기암환자 통증 완화 서비스 등을 시행중이다.

이와 함께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군민 2만 1천 명을 대상으로 무료 암 검진을 실시, 9명의 암 환자를 발견·치료 중이고, 관내 암 환자 142명에게 1억 7천만 원의 의료 비용을 지원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집에서 치료하고 있는 중증 환자를 위해 산소 발생기 등 11종에 달하는 의료 기구를 빌려줘 집에서 편리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충식 해남군수는 "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은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앞으로도 질병 없는 해남 만들기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고니의 힘찬 날갯짓 강진만을 찾은 겨울 진객(珍客) 고니가 힘차게 날아 오르고 있다. 청정해역 강진만에는 예년보다 열흘 정도 빠른 지난달부터 700여 마리의 고니떼와 청둥오리, 저어새 등 겨울철새들이 둥지를 틀었다. /연합뉴스

나주시 '업무태만'으로 거액 보상

지방도 49호선 확포장 용지 매입 졸속 처리…9천500만원 변상

나주시가 도로 건설에 편입되는 보상 업무를 졸속 처리하는 바람에 수천만원을 물어줘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됐다. 〈본보 10월14일자 12면 보도〉

전남도 등에 따르면 나주시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광주시계(市界)에서 금천면을 잇는 지방도 49호선 확·포장 공사에서 용지매수 업무를 도(道)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나주시는 지난 2002년 5월 금천면 석전리 2층 LPG 충전소 건물이 확·포장 구간에 편입돼 박모(55)씨에게 토지와 건물 보상비로 2억9천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박씨는 보상금을 받고도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3년여를 끌다가 2006년 1월 제 3자에게 소유권을 넘겼고 이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 소유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으며 박씨는 현재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다.

나주시는 애초 소유주인 박씨가 보상금을 받고 나서 건물 소유권을 넘겼는데도 사기 등 형사고발을 수년째 미뤄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 과정에서 보상금이 지급된 건축물에 대한 멸실(滅失)조치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나주시에 공문을 보냈다. 도는 이에 따라 시가 관련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만큼 담당과장과 계장, 직원 등이 건물분 9천500여만원을 연대해 변상하도록 했다. 문제의 건물은 설계변경 등을 거쳐 사실상 도로 부지에서 제외되면서 현재 제 3자가 거주하고 있어 애초부터 설계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변상 명령을 받은 나주시 관계자는 "건물 철거는 공사 시행과 감독을 한 전남도가 책임지는 것이 합당하며 중간에 설계변경까지 이뤄져 이를 지켜보고서 철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며 "감사원 등에 이의 신청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함평 양민학살 희생자 58주기 합동 위령제 봉행

함평 양민집단 학살 희생자 제 58주기 합동 위령제가 지난 6일 월야초등학교에서 봉행됐다. 〈사진〉

(사)함평사건희생자 유족회 (회장 노병량) 주최로 열린 이날 위령제에는 유족과 이낙연 국회의원, 이석형 함평군수, 국방부 김형기 조정관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함평 11사단 사건으로 258명(부상자 9명 포함)이 희생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가의 공식사과와 위령사업 지원, 부상 피해자 원호사업 등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국방부장관을 대리해 참석한 국방부 김형기 조정관은 "당시의 피해에 대해 사과한다"면서 "고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석형 군수는 "그동안 유족들이 참아온 아픔을 어떻게 풀어드려야 할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행정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노병량 유족회장은 "진실위원회의 권고 사항 중에서 가족등록부 정정은 최소 2009년 중에 실현돼야 하며, 위령사업도 2010년 내에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장흥군보건소 '아토피·천식 시범 보건소' 선정

장흥군 보건소가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아토피·천식 시범 보건소로 선정됐다.

아토피 발생률이 전국 최저 수준인 장흥군은 '아토피 없는 장흥군 만들기'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한방허브보건사업 일환으로 아토피 체험교실 및 체험캠프 운영, 억불산 편백나무숲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아토피 체험캠프'〈사진〉는 방학기간을 이용해 청소년들에게 숲길 걷기, 원예치료 화분만들기, 천연황토 염색옷 만들기, 편백 가습기체험, 아토피 식단 전시 등 다양한 프로 그램으로 진행돼 아토피 치료 및 예방에 성과를 거뒀다.

특히 장흥 억불산 우드랜드는 숲속에서 뿜어내는 피톤치드와 음이온 등 각종 성분이 아토피 질환에 효과를 보이는 등 친환경적인 자연환경으로 아토피 퇴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장흥군 보건소는 앞으로 아토피에 대한 예방관리 교육 홍보와 아토피·천식 친화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영광군에 원전 지원사업비 97억 배정

내년도 원전 지원사업비로 영광지역에 97억원이 배정됐다.

영광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지역위원회(위원장 최장수 영광군 부군수)는 8일 내년도 영광원전 측이 지원하는 사업비 113억6천600만원을 영광군 97억9천900만원과 전북 고창군에 각각 15억6천700만원씩 배분키로 결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광군이 총액의 86.211%를, 고창군이 나머지 13.789%를 나눠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영광원전이 지원하는 전기요금 보조사업에 14억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 ▲문화예술회관 15억원 ▲장학금 7억원 ▲불갑저수지 상류 관광지 개발사업 6억원 등 22개 사업에 85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키로 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완도군 예산절감 우수기관 선정 賞 사업비 2억 받아

완도군이 '2008년 지방 예산 절감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2억원의 상사업비를 받는다.

완도군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금일읍 원도 외 7개 도서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화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 설치와 비교해 47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 태양열 급탕시설 등으로 연간 1억5천만원의 비용 절감과 환경보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완도군은 10일 중앙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도서 낙도 태양광발전설비 및 태양광급탕시설 설치를 통한 에너지 비용절감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종식 군수는 "도서벽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해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적 이익과 환경보호라는 일석이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상사업비 2억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안정, 에너지 절감 분야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